

열린뉴스

CONTENTS

- 1 권두언 / 지역혁신 사랑방 역할 충실
- 2 연구원리포트 / 마케팅시대, 도시도 상품이다!
- 3 콜로키엄 / 도시유산의 가치
- 4 JDI FOCUS /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취지
- 5 공청회 토론요약 / 새만금 신항만 개발과 배후물류단지 개발전략
- 6 연구원 동정
- 8 알림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지역혁신 사랑방 역할 충실

우리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과 지역은 세계와 함께 호흡하며 그 변화에 조응해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은 전라북도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변화는 새로움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혁신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교감할 때 더욱 촉진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눌 때 혁신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종합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전북발전연구원은 시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미래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원은 살기 좋은 우리 도를 만드는데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창간하는 「전북발전연구원 열린뉴스」가 우리 도와 미래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혁신사랑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린뉴스」는 연구원의 소식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도민들의 정책제안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열린 학습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식과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혁신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북발전연구원장 한 영 주



전북발전연구원 열린뉴스
2005년 6월 통권 제1호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6월 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http://www.jd.re.kr>
 TEL. (063) 276-2060
 FAX. (063) 276-2069

마케팅시대, 도시도 상품이다 !

아라비아반도의 도시국가인 두바이의 세이크자예드 고속도로 부근은 온통 사막이다. 이 사막이 세계 도시의 중요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 열섬의 나라, 모래 바람 외에 볼거리가 없었던 관광빈국의 나라 두바이가 세계 관광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사막 한 가운데 실내 스키장이 만들어지고 바다위에 인공섬인 팜 아일랜드(팜 주메이라, 팜 자발알리, 팜 데이라)와 더 월드(The World)를 건설하여 분양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규모 테마공원 두바이랜드의 건설, 높이 321m의 세계 최고급 호텔 부르지 알 아랍 건설 등으로 세계 도시들은 두바이를 배우고 관광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도시는 이제 상품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도시를 판매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오래 되었다. 도시마케팅에 대한 관심은 지방정부 도시마케팅 박람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정부 도시마케팅 박람회(2005년 4월 27-5월 1일)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국외단체 등 총 35개 단체가 참여하여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지역의 상품, 캐릭터, 전략산업 등의 도시 브랜드를 알리고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였다. 이 박람회는 도시의 브랜드, 특산품, 산업 등을 소개하고 서로의 마케팅 전략과 경쟁력을 비교하는 기회가 되었다. 경남 함양군은 40여 가지의 약초를 전시하고 약초차를 제공하거나 금산은 인삼차와 산수유, 대전시의 후보로봇 전시, 안산시의 경주용차와 레이싱걸 배치, 아산시의 성웅 이순신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경쟁을 하고 있었다. 천안시는 'FAST천안'을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도시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혈당체크 등 건강상담, 영화상영 등의 이벤트 요소를 가미하였다.

이처럼 글로벌 사회 전제가 도시간의 경쟁시대에 진입하면서 국내 지자체들은 도시마케팅 전담 부서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의 마케팅담당관제 도입, 서울·부산·대구·대전의 컨벤션부로 설치, 안성시 마케팅담당관, 곡성군 관광홍보과의 지역마케팅계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이제 도시마케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도시를 상품화하여 방문객과 투자자를 유치하고 판매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된 것이다.

도시마케팅은 도시의 차별화된 분야를 발굴하고 체계적,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브랜드화하여 도시의 국내외의 경쟁력과 전체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모든 활동이다. 도시마케팅은 도시상품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촉진으로 구매자들의 필요와 욕구, 상품 구매 결정이나 사고변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경쟁도시간의 비교우위 창출을 위한 차별화 전략, 경쟁력 향상, 틈새시장 공략, 체계화 전략 등에 발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마케팅에는 지식, 정보와 아이디어를 통한 도시의 차별화, 경쟁화, 부가가치의 확장 등이 강조된다.

도시마케팅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장소를 근간으로

한다. 장소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자원, 전략산업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여가의 확장과 자연친화적 가치의 증대로 인하여 장소의 상품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관광과 축제, 농촌 및 생태, 비즈니스, 거주자 유치 등의 시장 분야는 도시마케팅의 전략적 사고와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관광과 축제·레저 분야는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상품의 매력을 높여 문화, 관광, 체험, 교육, 체류, 회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즈니스 분야는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기술이전, 도시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도시의 투자자나 비즈니스 조건을 상품화해 투자자, 기업가 등을 도시에 끌어들이고 있다. 엘라배마주 몽고메리시는 현대 자동차 현지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50여 개의 경쟁 지역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노력을 통해 최종 입지로 선정되었다. 엘라배마 주정부와 몽고메리시는 약 2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하였으며 채용된 2,000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6주간의 기초 교육비를 주정부가 부담하였고 몽고메리시가 현대차 엘라배마공장 성공기원 결의문 전달 등 적극적인 의지 표현과 후원을 하였다. 엘라배마주에는 벤츠, 혼다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도요타도 공장을 건설 중이어서 현대차 준공으로 자동차 공업지역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거주자 유치 분야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유출 등으로 지역의 인구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착화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노동자 및 지역내 활동가 등을 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노력 등 거주자 유치촉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제 도시마케팅은 지방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전략적인 수단과 사고의 혁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 문화관광연구팀 이 동 기

도시유산의 가치

Cor Dijkgraaf (PRCUD 의장)

전북발전연구원은 오는 10월 말에 개최하게 될 PRCUD전북 라운드테이블포럼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포럼에 대한 사전협의차 전라북도를 방문한 Cor Dijkgraaf(PRCUD 의장)에게 요청하여 5월 23일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콜로키엄을 개최하였다. “도시유산의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콜로키엄에서 Cor Dijkgraaf 의장은 도시유산의 보호 목적을 문화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실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첫째,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시유산은 도시의 문화적·역사적 발달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현 도시문화 발전방향에 대한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 근원이 되며, 각 도시로 하여금 각자의 특성을 갖게 하여 각 도시의 독특함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다.



〈쉬밤(Shibam)〉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의 인프라와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도시유산 개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로 인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도시문화의 발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자산 가치를 높여려는 노력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시에 남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도시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유산이 경제적 자산으로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경제적인 측면의 이유를 들고 있다. 잘 보존된 도시는 관광객과 투자자를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 자체만으로 고용을 창출하며, 도시유산의 보존은 같은 규모의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Cor Dijkgraaf 의장은 정부가 공공정책을 통해 도시유산을 성공적으로 보존한 예로 릴레(Lille), 말라카(Maleka), 앤트워프(Antwerp), 그리고 예멘의 도시 사나아(Sanaa), 쉬밤(Shibam)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복원된 도시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으로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데, 말라카의 경우 연간 관광객이 4백만에 달하고 엔트워프는 도시 소득의 25%를 관광산업에서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Cor Dijkgraaf 의장은 이같은 성공한 사례를 들며 공공부문에서 선투자를 강조하고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건물의 외양이나 용도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도시중심을 재조성함으로써 도시유산을 보전할 수 있으며 도시 내부의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그들의 개성을 유지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가짐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사나아(Sanaa)〉

PRCUD는 어떤 단체

(Pacific Rim Council on Urban Development)

비영리(NGO)상호이익단체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두고 의장과 이사들은 각 국으로부터 도시 및 지역발전에 관한 저명한 학자와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다. PRCUD라운드테이블포럼은 유치지역의 도시 및 지역발전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의 전문가와 국제전문가간에 토론을 하는 수준 높은 공개포럼으로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한 심도 높은 토의를 통한 정책제언을 하는 것이 특징.

Cor Dijkgraaf 는 누구

건축설계사, PRCUD 의장,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회장, 네덜란드 로테르담 도시문제연구소 이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지역개발원 수석고문, 네덜란드 로테르담 소재 국제기구인 주택과도시발전연구소(IHS) 소장 역임.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취지

21세기는 흔히 지식기반(Knowledge-based)사회라고 한다.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근원이 되는 사회로서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한편 지식은 사람에게서 체화되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을 창출 활용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식기반사회는 유용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라 말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및 지역의 발전전략으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재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역별 격차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활성화 방안으로 인적자원개발시범지역(부산, 광주, 충북)을 선정·운영하고 시범지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역인적자원개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연구진을 구성하는데 있어 전라북도의 각 대학, 전라북도, 교육청, 연구원,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 연구진추천을 의뢰하여 16명의 외부연구진을 확정하였고 보다 폭넓은 참여를 위해 각 연구진에 3-4명의 패널을 구성했다. 2004년 11월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및 사업홍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또한 도민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전라북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Jump START 21”을 내세웠다. 21세기의 바람직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힘차게 추진하자는 의미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전인적 인재중심 일등전북’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Jump START 21”이 추구하는 인적자원은, 전라북도를 지식기반사회로 이끄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능동적이고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창의적인 전인적 인재이다.



발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방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전라북도는 전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청사진 마련, 지역인적자원개발 모델의 정립을 통한 확산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기본목표로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에 인적자원담당부서를 설치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 노동청,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특별지방행정기관, 민간부문의 관련기관 및 대학교(전문대 포함) 등에 담당부서를 두고 전라북도과 유관기관의 정책책임관을 지정했다. 또한, 2004년 6월, 전북발전연구원에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두어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다.



전라북도의 성공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며 그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이에 전라북도에 꼭 필요한 세부계획을 착실히 실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전라북도에서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실행여부는 실제적으로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실행 시 주체들 간의 전폭적인 협력이 전제되었을 때 전라북도는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이강진

「새만금 신항만 개발과 배후물류단지 개발전략」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차별적 논리개발 필요’

지난 5월 22일 새만금 신항을 동북아 시대의 거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새만금 신항만개발과 배후물류단지 개발전략』 공청회가 본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 물동량 예측(2004)”에서 새만금 신항만에 물동량 배정을 제외시켜 도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네덜란드 등 2개 국가의 전문가와 국내전문가, 기관단체장, 학계, 시민단체,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가졌다.

김선곤(전라북도의원) 부산항과 광양항 집중개발의 Two-Port 시스템의 항만정책은 국가물류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결국은 국가경쟁력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2003년 대비 2004년은 42%, 2004년 대비 2005년 물동량은 22%가 신장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부권 서해안에 신항만개발을 서둘러야 하며 새만금 신항만 예정지가 최적지로 평가된다. 또한 향후 5~10년 이내에 12,000TEU 선박이 기항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Mega Port로서의 새만금 신항만을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에 14년간 투자된 1조 8천억원 보다 부산항(가덕도) 공사에 약 9년 동안 9조 8천억원을 투자하였다. 항만개발 투자도 균형을 이루어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9조 8천억원의 투자를 서해안 중부권에 약 2조원 가량 투자한다면 국가물류비 절감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류재영(건설교통부장관자문관) 새만금은 중부 서해안이라는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책적 위치를 못잡고 있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 문제는 새만금 자체의 개발이 유동적 이므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새만금 신항은 국제무역항으로 지정될 것이다. 본 계획에 사용된 물동량은 1996년에 추정된 것을 사용한 것으로 그 후 컨테이너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1년 항만종합계획에서도 일반화물의 비중이 컸으나, 이후 거의 컨테이너화 되었으므로, 새만금 신항만도 컨테이너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배후에 제조업 등이 아닌 첨단산업의 입지가 유력하므로 컨테이너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 항만은 특정한 항만이 대표 주자가 아니라, 다양한 항만이 모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항만 선택이 매우 넓으므로 규모가 확보되지 않으면 연계성의 확보, 검수 등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규모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호영(독일함부르크항만청한국대표) 새만금 신항만의 개발 당위성을 중국의 동북 3성과 새만금의 연계라는 환서해권의 상황 인식과 환적물동량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환서해권의 경쟁력은 중국 북부와의 교역에 있으나, 우리는 중국 북부의

성장을 겨냥하고 있는 서해항만이 없는 실정이다. 부산항 화물의 60%가 중국화물이고, 이 중 90%가 동북 3항(청도, 천진, 대련)의 환적 화물이다. 이러한 부산항 유입 환적 화물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3개 항이 자립항이 되었을 때 환적물량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과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국가 기간항으로서 1000만TEU대 항만을 만든다면 승산이 있다. 즉 Over-Night Jump 체제와 저렴한 환적비(비용절감용 항구가 필요함)를 제공하면 중국 물동량을 흡수하여 환적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발생할 것이다.

정필수(한국종합물류연구원장) 새만금 신항만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Time Zone과 Space Zone, 그리고 항만 논리의 경쟁체제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기와 공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일반항만 개발논리의 접근을 탈피한 새만금신항만 개발의 독특한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항만은 모든 것이 경쟁체제에 있기 때문에 다른 항만의 계획과 경쟁우위 항목의 확보에 염두를 두고 진행해야 한다. Integrated port(통합항만)는 관광, 산업, 문화 등의 다기능적 기능의 조합이 아닌 다양한 주변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황호만(군산대학교수) 지리적 여건만으로 정부투자나 민자 유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며 물동량도 일반적인 제조업이 배후단지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의 농업경제와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농수축산 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그것도 새만금 외부 지역이 아닌 바로 새만금 지역의 토지 자체를 활용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r Dijkgraaf(PRCUD의장) 세계는 항만의 대형화 추세 경향이 있다. 경제의 성장에 따른 물류비 감소를 위해 항만교통에 대한 경쟁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만금 신항만 개발정책의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1차 정기이사회

본원 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3월 21일 본원 회의실에서 이사 등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새로 출범한 전북발전연구원의 첫 이사회로 업무보고와 함께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과 2005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연구원 개원식

본원 개원식이 4월 1일 KT빌딩(15층)에서 강현옥전라북도지사과 정길진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내 산학관련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한영주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통합연구원의 초대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비록 타시도연구원보다 출범이 다소 늦었지만 연구역량을 결집시켜 경쟁력 있는 연구원으로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업무보고

본원 한영주원장은 5월 17일 전북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명)에 2005년도 연구원 운영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였다.

본원이 전라북도 출연연구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첫 업무보고로 다소 긴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별다른 지적없이 의원들의 연구원에 대한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약속 등으로 고무된 분위기였다.

연구원 청사이전

6월 전북도청의 효자동 신청사 이전과 함께 본원도 오는 7, 8월 중 전북도청 서편청사(구 전북경찰청 2층)로 이전할 계획이다. 구 전북경찰청사 2층은 총 500여 평 규모로 연구실과 행정실, 정보자료실, 세미나실, 대회의실 등을 고루 갖춘 계획이다. 현재 위치한 서신동 청사의 공간이 협소하여 분리운영하고 있는 여성정책연구소와 함께 이전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통합 사무실로 활용될 것이다.

전북발전포럼 발간

본원에서는 「전북발전포럼」을 오는 7월 중 여름호를 시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전북발전포럼은 전북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논단 및 지역혁신 성공 사례 소개, 해외탐방, 기타 논문 등으로 구성되며 계간지 형태로 발간된다.

제3회 서해안포럼 개최

2005년 8월 말에 개최할 제3회 서해안포럼이 본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의 공동주최로 전라북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해안포럼은 서해안에 연계해 있는 시·도 연구원이 공동연구·기획하여 서해안의 잠재력 극대화과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광주·전남 지역의 5개 시·도 연구원장의 합의로 2001년 발족하였다.



연구원 사람들 : 지난 4월 1일 전북발전연구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개원식을 마치고 전직원 찰칵!!



「PRCUD 전북포럼」 유치 MOU체결. 한계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강현욱 전라북도지사, Cor Dijkgraaf PRCUD의장, 본원 한영주 원장(왼쪽부터)

「PRCUD전북포럼」 유치 MOU체결

5월 23일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와 PRCUD Cor Dijkgraaf 의장이 「PRCUD 전북포럼」 유치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원의 주관으로 2005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새만금사업을 대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새만금의 당위성, 새만금사업의 국내파급효과, 토지이용계획, 투자 재정 계획 등의 주제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을 하게 된다.

제 1, 2차 콜로키엄 개최

본원은 지난 3월 16일 전북을 방문한 미국 남가주대학 Eric Heikkila교수의 “City Shaping: An Application to Jeonbuk”이라는 주제로 제 1차 콜로키엄을 개최하였고, 5월 23일에는 PRCUD Cor Dijkgraaf씨의 “Urban Heritage :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values”라는 주제로 제 2차 콜로키엄을 개최하였다.

여성정책연구소 「시·군 순회방문」

4월 12일부터 본원 전정희 여성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은 전북지역 14개 시·군 순회방문을 하였다.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성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여성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방문이 이루어졌다. 정책담당자로부터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내용설명과 함께 정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어려움, 자치단체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

연구과제 착수자문회의

본원은 전북과학단지 기본계획수립 등 올해 14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수행계획의 적정성(연구내용 및 연구체계, 연구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착수하였다.

- 전주세계소리축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4월 27일): 이정덕(전북대학교수), 심인택(우석대학교수), 한상범·민선식(전북도청 문화산업과)
- 전북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4월 28일): 이영세(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나영숙(전북여성농민연합 사무국장) 유상희(전북도청 농정과 농촌지역삶의질TF팀)
-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4월 29일): 이연숙(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원장), 최원규(전북대학교수), 진강렬(전북도청 노인복지담당)
- 전북지역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5월 6일): 안종석(전주대학교수), 박강표(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김관식(전라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노홍석(전북도청 기업지원과)
- 성매매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활용 연구(5월 6일): 정미례(성매매해결을위한 전국연대공동대표), 송경숙(전북성매매인권센터장), 김선남(원광대학교수), 김경식(전북도청 여성정책과)
- 군산항 물류 기·중점 분석(5월 9일): 김용환(호원대학교수), 송재훈(우석대 물류컨벤션센터소장), 이기현(세방기업 전주지사), 박준배(전북도청 경제통상실 정책관)
- 전북과학연구단지 기본계획 수립(5월 10일): 이해성(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부장), 성태경(전주대학교수), 강신재(전략산업기획단장), 김용만(전북도청 과학정책담당)
- 전라북도 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5월 12일): 원찬희(전북대학교 교수), 조임곤(경기대학교 교수), 심정연(전북도청 환경정책과장)
- 200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안연구(5월 16일): 윤석완(전북대학교수), 노학기(전북도청 예산담당계장), 안국찬(전북대학교수)
- 전라북도 국가기반 보호체계연구(5월 19일): 이재은(충북대학교수), 박 현(원광대학교수), 서한진(전북도청 국가기반담당자), 최재석(행자부 국가기반담당)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발전 방안(5월 20일): 김희철(IFFE), 정영삼(중소기업청), 윤재규(전북도청 과학산업과)
- 전북지역 여성과학기술인력실태 및 지원방안(5월 20일): 조덕이(우석대학교수), 이은미(생물산업진흥원 연구위원), 김용만(전북도 과학정책담당)
- 새만금백서(5월 26일): 양재삼(군산대학교수), 한경태(농업기반공사새만금사업단 관리실장), 주종권(새만금개발추진지원단장)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발전방안(5월 31일): 이정덕(전북대학교수), 이인권(한국소리문화의전당대표), 문윤걸(전주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2005년도 연구사업

구분	연구과제명	비고	구분	연구과제명	비고
기본 과제	•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지후보지 선정*	기획관	정책	• 민선3기 3년 성과 및 전북의 미래비전 제시	기획관
	• 2005 전라북도 주요업무 자체 평가지표 개발	기획관		• 『주5일제』 대비 종합대책	기획관
	• 200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라북도 재원 기준 연구	예산담당관	과제	• 제2정부통합산선센터 유치제안서	정보통신담당관
	• 군산항 물류 기·중점 분석에 관한 연구	경제정책관		• 새만금 백서	새만금개발추진단
	• 전라북도 외국인투자유치방안	국제통상과	수탁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국무조정실/새만금개발추진단
	• 전북지역 중소기업육성 증장기 계획	기업지원과		• 새만금 신항만개발과 배후물류단지 개발전략*	경제정책관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발전 방안	과학산업과		•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총무과
	• 전북과학연구단지 기본계획	과학산업과		•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도시*	관광진흥과
	• 전북지역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 및 지원 방안	과학산업과	과제	•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전라북도 국가기반 보호 체계 연구	자치행정과		• 전북 도시계획 100년사 도록 편찬*	건설행정과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발전방안	문화예술과	협약	• 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완주군
	•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한 연구	문화산업과		•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체 사무국*	혁신분권담당관
	• 전라북도 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과		•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활용사업	과학산업과
	• 전라북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가정복지과		•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 DB구축	자치행정과
	• 건강한 가정과 가족기능 강화방안	가정복지과	사업		
	• 전북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농업정책과			
	• 성매매의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 연구	여성정책과			

* 계속사업

2003년 ~ 2004년 연구사업 실적

● 참여정부정책

연구과제명	출간년도
• 제1차 전라북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04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전라북도 발전방향	'04
• 중앙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전략	'03
• 중앙공공기관별 전북 유치전략	'04
•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전략	'03
• 전라북도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예비조사연구	'03
• 지방분권특별법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대응전략	

● 현안국책사업

연구과제명	출간년도
• 새만금 내부개발 추진방안	'04
• 군산경제특구지정에 관한 연구	'03
• 원전센터 관련 여론조사	'04
•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04
• 2014 동계올림픽 개최 타당성 분석 및 유치전략	'04
•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제안서	'04

● 여성 정책

연구과제명	출간년도
• 전북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욕구 연구	'03
• 일반여성의 사회참여실태 및 사회참여 확대 방안	'03
• 가족보호기능 지원방안 연구: 보육문제를 중심으로	'03
• 6·13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태연구	'03
• 전북지역 여성단체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03
• 전북지역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여성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03
• 여학생의 과학기술 분야진로 장애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03
• 여성의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및 활성화 연구	'03
•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04
• 17대 총선과 여성후보지원에 관한 연구	'04
• 전북 여성자원활동 실태 및 효율적 활용방안	'04
• 전북 여성장애인생활 실태 및 취업에 관한 정책지원방안	'04
• 여성노인의 여가생활 및 소득창출 연계방안	'04
•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연구	'04
• 전북지역 공무원의 성의식 및 여성정책 이해조사	'04
• 전북지역 여성회관의 사회교육운영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04
•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04
• 전라북도 노인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04

● 도정평가

연구과제명	출간년도
• 2003년도 전라북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지표 개발	'03
• 2004년도 전라북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05
•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연구기관 평가시스템 구축	'03
• 도정 주요시책 외부평가(Ⅰ,Ⅱ)	'03~'04
• 제84회 전국체육대회 평가	'03

● 분야별 계획

연구과제명	출간년도
• 제17대 총선공약 반영사업 발굴	'04
• 대형국책사업 발굴	'04
•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계획	'04
• 전북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방안	'04
• 전라북도 지역 경기종합(동행)지구 개발연구	'04
•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방안	'04
• 전라북도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방향	'04
• 전라북도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한 연구	'03
• 전라북도 산업집적지 발전전략	'04
•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운영방안	'04
• 방사선융합기술산업 육성방안	'03
• 전라북도 장학소 조직진단	'03
• 향토지적재산권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	'04
•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04
• 전북학 연구총서(Ⅰ,Ⅱ)	'03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주변지역개발과 전북관광 자원 연계화방안	'03
• 전라북도 문화산업 육성방안	'04
• 전라북도 영상산업육성 기본계획	'03
•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전략	'04
• 전라북도 청소년의 PC방 이용실태조사	'03
• 전라북도 체육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04
• 시설농업용 폐영농자재의 농가처리실태와 효율적 관리제도	'04
• 전라북도 사회복지 중기 종합계획	'03
• 전라북도 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04
• 전라북도 도시계획 100년사	'03
•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	'03
• 융담다목적댐 보강 백서	'03

● 시·군 발전계획

연구과제명	출간년도
•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따른 익산시 역할	'04
•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	'04
• 신태인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03
•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03
• 장수군 특화발전계획	'04
•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04

● 주요행사 및 교육 사업

사업명	년월	비고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03/12	한국지역학회 공동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방안 전북공청회	'03/12	국토연구원 공동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 전북공청회	'04/07	국토연구원 공동
•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지역균형발전 심포지엄	'05/01	행정안전부 공동
• 기업도시건설 학술토론회	'04/04	
• 고속철도와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	'04/06	국토연구원 공동
• 지역혁신과 전라북도의 대응 워크숍	'03/12	
• 제1차 전라북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공청회	'04/03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 활성화 심포지엄	'04/11	
• 새만금 토지이용구상 심포지움	'03/11	
• 새만금방조제 도로승상방안 공청회	'04/03	
•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 비전 세미나	'04/11	
• 전북·충남 공동발전 라운드테이블	'04/08	충남발전연구원 공동
• 환경해경제권의 중심지로서 전라북도와 강소성의 공동발전 국제학술대회	'04/10	한국지역학회 공동
• 전라북도 문화산업 2003포럼	'03/09	
• 전라북도 문화산업 2004포럼	'04/11	
• 전라북도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모색	'03/02	
• 전북지역 여성단체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	'03/02	
• 호주제도 폐지를 위한 실천방안 모색	'03/05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실태와 정책대안모색	'03/10	
• 4·15 총선과 여성후보 지원방안 모색	'04/02	
•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	'04/05	
• 여성의 보육부담 완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방안 모색	'04/07	
• 전북지역 여성정책 활성화방안 워크숍	'04/09	
• 17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04/10	
• 전북지역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	'03/03	교육사업
•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워크숍	'04/05	교육사업

※ 본 연구원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PDF로 보실 수 있으며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 공모

본 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본원 홈페이지 <http://www.jd.re.kr> (연구제안)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